

출판 공교육 살릴 해법은 무엇...

출판 사설교육기관, 출판산업 관련 주무부서 함께 나서야



이후 출판관련교육은 주로 2년제 대학과 특수대학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년제 대학에서는 출판계 신입기능교육을, 특수대학원에서는 대체로 경력자 심화·보수교육을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진행되어 왔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출판은 지식·정보·문화의 체계적 생산 및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출판인은 어떤 형태로든 출판교육에 의해 탄생하기 마련. 그러나 작금의 출판교육은 장기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10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단계 한국출판문화정책의 진단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경인여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윤세민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 열풍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출판관련 학과"라며 "출판계의 불황과 출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출판 공교육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제문 <출판·잡지 교육원 설립과 출판교육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통해 밝힌 출판 공교육의 위기 상황 전반에 대

한 윤 교수의 문제제기는 출판계 안팎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출판·잡지 교육원 설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문화관광부의 출판인력 양성 정책의 허와 실, 출판교육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관한 그의 예리한 현실 진단이 관심을 모았다.

출판학과 존폐 기로...출판산업계 인력수급 장애, 출판학 위기 불러

한국에서 출판 공교육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신구대학 인쇄학과에 출판전공이 개설되면서부터다. 1981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 출판잡지 전공이 개설되었고, 이듬해 혜전대학에 처음으로 독립된 학과로 출판학과가 탄생했다.

이후 출판관련교육은 주로 2년제 대학과 특수대학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년제 대학에서는 출판계 신입기능교육을, 특수대학원에서는 대체로 경력자 심화·보수교육을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진행되어 왔다. 윤세민 교수는 출판 공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한 뒤 "2005년 6월 현재 계원조형예술대학, 동원대학, 서일대학, 신구대학, 혜전대학 등 단 5개 대학만이 출판관련 학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나마도 언제 변화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학출판 관련 전공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가 밝히는 출판 공교육 위기의 원인은 ▶대학입시 응시자 부족 현상 ▶출판계가 실제 이상으로 지나치게 부각시킨 출판계 불황인식 파급 ▶열악한 출판산업 노동조건 ▶출판 공교육에 대한 출판계의 부정적 인식 등 4가지로 정리된다.

윤 교수는 "출판관련 학과의 존폐위기는 출판산업계 인력수급에 큰 지장을 줄 것이며, 전과 혹은 폐과된 출판관련 학과 교수 역시 연구 수행의 장을 잃게 돼 출판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렸다. 윤 교수는 또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출판교육과 출판

산업 관련 주무부서는 출판 공교육의 위기가 현실로 닥쳐왔음에도 수수방관해왔다"며 "별다른 정책 개발이나 지원을 하지 않았던 이들 부처의 안일한 자세와 무능력도 출판 공교육의 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출판계 · 출판 시설교육기관, 출판 공교육과 협력적 관계 필요

윤 교수는 "대학에서 적절한 인력공급이 되지 않을 때 시설교육기관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시설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설교육기관은 단기교육을 통해 시급한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체계를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서울북인스티튜트(이하 SBI)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했다. "출판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SBI 홈페이지의 홍보 문구를 놓고 "교육의 가치와 철학은 무시한 채 홍보와 모집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출판산업의 표준화를 피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SBI 교재개발에 대해서도 "진정한 출판산업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출판계, 학계, 관련 연구단체, 정부 등이 긴밀한 협의, 연구를 거쳐야 가능한 것 아니냐"며 "그렇게 각계의 참여가 이뤄진 가운데 탄생돼야 할 교재를 과연 독단으로 개발하는 것이 온당한가"하고 꼬집었다.

'SBI의 성장과 발맞추어 <대학원 대학교>와 같은 정규 학위과정 발전 모색'이라는 SBI의 설립 목적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 교수는 "2년제 전문대학 출판관련 학과가 폐과되고 4년제 대학의 출판관련 전공이 자취 없이 사라진 현실에서 <대학원 대학교>와 같은 정규학위과정 발전을 모색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판교육계의 전체적 위기상황을 맞는 가운데 출판계는 무엇을 했는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며 "출판계가 출판교육계와 협력적 동지적 관계인지, 경쟁적 관계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국, 출판 공교육 지원 인식...SBI 단 한군데 지원 그쳐

윤 교수는 이날 특히 문화관광부에 대한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그가 밝힌 문화관광부 출판인력양성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문화관광부의 출판 전문인력 양성정책과 지원 실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 한군데 불과하다. 바로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영하던 출판전문교육기관 출판아카데미를 서울북인스티튜트로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8개 정규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총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출판산업 전체 예산 105억5000만원 중 4.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출판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었듯, 출판 공교육에 대해서는 어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출판문화정책의 엄격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떤 정책과 지원을 펼칠 것인가"라는 윤 교수의 질문에 돌아온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출판의 공교육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바, 우리 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 안타까운 심정마저 들었다"며 "출판전문인력 양성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관심과 의지와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교육 근간 흔들어진 안돼... 출판교육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이날 주제 발표 후반에서 윤 교수는 출판교육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앞서 밝힌 제언들을 소개했다. 출판의 실무적 기능교육과 출판의 학문적 체계화 교육의 동시 진행을 비롯해 4년제 대학 출판전공학과 설립,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민감한 출판교육, 산학연관의 연계가 실제적으로 강화된 출판교육, 교육 수요자 및 출판수용자를 위한 출판교육이 그것이다.

윤 교수는 "교육은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만 확고한 정체성을 뿌리내리며 발전하는 법"이라며 "인류문화의 근간을 이뤄 온 출판에의 경우 특히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이용준 교수가 <참여정부의 출판문화정책에 대한 고찰과 제언>을,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점검과 제언>을 발표, 한국출판문화정책의 엄격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정리_박용두 기자